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4대 혁신방안 추진

- ① 알키미스트 시즌2 등 고난도 연구개발(R&D) 투자비중 ⁽²³⁾1% → ⁽²⁸⁾10%로 확대
- ② 100억원이상 대형과제 ⁽²³⁾57 → ⁽²⁴⁾160개로 확대, 기업부담 대폭 완화
- ③ 품목지정 방식으로 전면 전환, 주관기관에 과제운영 전권 부여
- ④ 연구인력 해외파견 지원, 신진연구자의 기획·평가·연구 문호 확대

산업·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이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기업의 현금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한편,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 기획과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18.(목) 14시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그간 20여 차례에 걸쳐 500여명의 연구자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왔고, 이를 통해 4대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보조금 성격의 연구개발(R&D) 지원은 중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R&D)에 지원을 집중한다.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알키미스트 시즌2)를 위한 1조원 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하여 고난도, 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비중을 현재 1%에서 5년 내 10%로 확대한다. 또한,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하여, ‘24년 민관합동 2조원(정부 1.3조원)을 투자한다.

둘째,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형과제 중심 사업체제로 개편한다. 100억 원 이상 과제 수를 ’23년 57개에서 금년 160개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 인하(최대 45%p), 과제 비공개, 자체 정산 허용 등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셋째, 연구개발(R&D)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하여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기획을 주도한다. 주관기관에 컨소시엄 구성, 연구비 배분 권한을 부여하는 Cascading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연구개발(R&D) 평가에 시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

하고, 투자연계형 연구개발(R&D)을 대폭 확대하는 등 연구개발(R&D)사업이 시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넷째,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8개 추가(現 3개)하는 등 인력양성 투자를 강화(⁽²³⁾2,062→⁽²⁴⁾2,294억원)한다. 국제공동연구시 해외 파견연구를 지원하고, 신진연구자의 연구개발(R&D) 참여 확대 및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스타 연구자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안덕근 장관은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을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crowding-in)하는 한편,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 고】**
1. R&D 혁신 라운드테이블 개요
 2. 산업부 장관 인사말
 3.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 주요내용
 4. 산업·에너지 R&D 4대 혁신방안
 5. ‘24년 중점 투자 R&D

담당 부서 <총괄>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 권 (044-203-4510)
	산업기술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철영 (044-203-4511)
			사무관	조영길 (044-203-4515)
			사무관	최재혁 (044-203-4513)



□ 추진배경

- 산업·에너지 분야 R&D 구조개혁을 위한 「산업·에너지 R&D 투자 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 발표
-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와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R&D 시스템 개편 논의

□ 간담회 개요(안)

- 일시 : '24.1.18.(목) 14:00 ~ 15:30
- 장소 : 삼성전자 R&D 캠퍼스 (양재)
- 참석 : 산업부 장관(주재), 연구기관장, 대학(연구부총장), 대·중견·중소기업 CTO, R&D 전문기관장 등 20명 내외
- 내용 : ①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 발표
②산업·에너지 R&D 시스템 개편 논의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05'	인사말	산업부 장관
14:05~14:20	15'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	산업부
14:20~15:25	65'	산업에너지 R&D 시스템 개편 논의	참석자
15:25~15:30	05'	마무리 발언	산업부 장관

* 행사 전 연구현장 방문 예정(비공개)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입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대표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특히, AI, 로봇, 헬스케어 등 미래기술을 연구하는 현장에서 산업·에너지 R&D의 혁신방안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R&D는 성장잠재력 회복과 경제안보 확보의 핵심 수단이며, 우리 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싸워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기술경쟁력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 R&D의 비효율성과 성과 부진을 지적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가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해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에 투자를 집중하는 한편, 개방성과 적시성,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혁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R&D 투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우리 산업·에너지 R&D도 과거의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파급력 있는 시장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전략과 사업구조의 대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간 산업부는 20여 차례에 걸쳐
기업 CTO, 대학·출연연 연구자, 청년·신진연구자 등
500여명을 현장에서 만나 소통하고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그간 정부 R&D가
전략성이 부족하고, 쉬운 과제를 지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소기술 중심의 소규모 사업으로 성과창출에 한계가 있고,
높은 기업부담으로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기획, 선정, 평가 등 R&D 프로세스가 정부 및 전담기관 등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투자전략, 사업구조, 프로세스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담았습니다.

우선, 기업과 민간이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11대분야 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부 신규 예산의 70%를 집중 투입하고,
‘24년에만 민관이 함께 2조원을 투자하여
정부 R&D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것입니다.

실패 확률은 높지만 성공시 파급력이 매우 큰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산업난제 해결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을 현재 1% 수준에서
향후 5년간 10%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시장성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존의 소규모, 요소기술 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벨류체인을 포괄하는 목표지향 대형과제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00억원 이상 대형과제의 수를 작년 57개에서
금년에는 160개로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형과제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요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촉진하겠습니다.
기업의 현금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고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R&D 과제를 비공개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 선진기술을 신속히 흡수하여
상용화할 수 있도록
180개 원천기술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도
금년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셋째, 기업·연구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를 개편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소통하여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를 직접 기획하는
품목지정 공모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참여기관 선정, 연구비 배분 등
과제운영 전권을 부여하는 Cascading 제도도 도입합니다.

주관기관 선정 평가에서 시장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투자 매칭 R&D지원 방식도 확산하는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R&D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8개를 추가 지정하여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공동 연구시 국내 연구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신진연구자들이 사업기획, 선정평가 등에 참여하는
문호를 확대하고,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대폭 낮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손일 교수님, 장영재 교수님처럼
역량 있는 연구자가 창업을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스타 연구자의 성장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새로운 혁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R&D 다운 R&D”에 투자해 파급력 있는 성과를 내고,
미래 인재들도 성장하는
산업·에너지 R&D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임기 중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기술 R&D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기탄없는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참고3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 주요 내용

산업부는 지난해 총 20여 차례에 걸쳐 기업, 출연연, 산학협력단, 차세대리더, 여성공학인, 신진연구자 등 현장 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500여명 이상의 연구자와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검토하고 반영하여 산업·에너지 R&D 4대 혁신방향과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했다.

<산업·에너지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



1. (투자전략)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집중지원

□ 세계적인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관행적·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중단하고, **글로벌 최고에 도전하는 기술을 집중 지원**한다.

- ① 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미션 중심의 **11대 분야 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24년 신규예산의 70%를 배정해 민관합동으로 **약 2조원** (정부 1.3조원)을 투자한다.

②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실패 확률이 높지만 세계시장을 선도(First Mover)할 수 있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개발을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에타를 추진('24)하고, 산업별 난제 해결을 위한 초고난도 과제들에 매년 신규과제 예산의 10%(약 1,200억원 수준)를 투자한다.

□ 글로벌 최고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성격 지원은 중단하고, 혁신 역량 높은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① '24년에 민관 합동으로 총 2.4조원 규모의 CVC(기업형벤처캐피탈) 펀드를 조성하여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에 집중 투자한다.

②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용자 사업을 신설하여,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24~'27년간 총 3,900억원(잠정) 규모 **초저금리 자금 용자**를 지원한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용자('24~'27년, 3,900억원): '24년 900억원, 저리지원(1.84%)

③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해 한시적(~'24.12)으로 일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p **상향**한다.

* (중소기업) 50 → 60%, (중견기업) 40 → 50%, (대기업) 25 → 35%

2. (사업구조) 시장 성과 극대화를 위한 R&D 체계로 개편

□ 분절된 소규모 요소기술 과제들이 연구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최종 대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션이 명확한 **대형·장기투자 체계로 재편**하고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① 소규모 파편화된 사업은 줄이고, **미션 중심으로 유사목적의 사업들을 통합***하여 추진한다. 또한 투자의 적시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형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연중 기획, **年 3회 공고**를 통해 현장수요를 즉시 반영한다.

* 사업수: ('23) 280개 → ('24) 230개

100억원 이상 목표지향 대형과제 ('23) 57개 → ('24) 160개로 확대

* 예산 심사시 규모를 확정하고 부처 자율 과제 기획 / ('23) 58% → ('24) 71.8%

- ② 수행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연구비중 **기업 부담분의 현금 비율을 대폭 인하***하고, 기술 보호를 위해 기업이 신청할 경우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제 내용, 성과, 연구기관 등 정보를 비공개 조치**한다. 아울러 **성실집행 기업·연구기관은 자체 정산을 허용**하여 연구비 지출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 (대기업) 60 → 15%, (중견기업) 50 → 13%, (중소기업) 40 → 10%

- ③ 임팩트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국내의 모든 연구자에게 R&D를 개방**하고,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 **6곳에 협력센터를 구축('24)**하여 공동연구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해외가 비교우위에 있어 국제 협력이 필수적인 **180개 원천기술***은 전략적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 (초격차 급소기술) 80개, (차세대 원천기술) 100대, (게임체인저기술) 10대 등

3. (프로세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 개편

□ 우수한 **기업과 연구자가 연구를 주도**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R&D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한다.

- ① 정부가 기술을 지정해온 그간의 R&D 방식을 탈피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품목과 목표를 지정**하고, 수행기관이 기술내용과 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경쟁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무기명 Peer Review**를 통해 세계최고·세계최초 여부를 검증하여 기획을 고도화한다.
- ②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사업 운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Cascading 방식***의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주관기관이 주도하여 공동 연구기관을 구성하고 연구비를 배분하는 유연한 수행을 지원한다.

* (일반과제) 컨소시엄(주관+공동연구기관)을 선정.협약, 협약에 따라 기관별 연구 수행 (Cascading) 주관기관만 선정.협약, 주관기관 주도로 과제 수행

- ③ **도전성·혁신성·시장성 검증**을 강화한다. 특히 평가에 시장·산업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다. 특히 민간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 방식도 대폭 확대****한다.

* (現) 과제선정 평가시 시장·산업전문가 2명 이상 → (改) 3명 이상 참여

** ⁽²³⁾ 소부장 365억 → ⁽²⁴⁾ 소부장 + 반도체·이차전지·로봇·바이오 등 약 1,100억원

- ④ **PD**는 기존 사업기획 역할에서 벗어나 선정·수행·평가 등 R&D 전주기를 지원하는 **성과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DARPA 방식) 아울러 R&D 전문기관도 지원형 조직으로 재편한다.

* (現) 사업기획 위주 → (改) 선정·수행·평가 등 전주기 지원

4. (인재양성) 사람을 키우는 R&D를 강화

□ 미래 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① 첨단산업 현장 수요에 기반한 고급인재 양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인력양성 예산을 11% 확대**하여 석박사 고급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24년에 **11개로 대폭 확대**한다.

* ('23) 반도체 3개 → ('24) 반도체·배터리 각 3개,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 추가

- ②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공동 연구시 **현지 파견 연구비·체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대학·첨단산업 현장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한·미 첨단분야 청년인재(학부) 교류지원 : 1,923명('23~'27)

* 한·네 ASML·IMEC 연계 교육(석박사) 프로그램 : 500명('24~'28)

- ③ **(신진연구자)** 기획·평가 등 R&D 전주기 프로세스에 신진연구자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연구자)** 연구비 사용증빙 간소화*, 행정전담인력 제도 확산 등 석·박사생의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공공연구자)** 또한 역량있는 연구자의 **원활한 창업**을 위해 **휴·겸직, 주식취득 등 전면 허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1월부터는 연구자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를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직무보상비율도 60%로 확대**한다.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과 국세청·건강보험공단·관세청의 연구비 사용정보 자동연계

도전적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
파급력 있는 시장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초격차산업 경쟁력 확보

- 40대 프로젝트
'24년 민관 2조원 투자

도전·혁신적 연구 확대

- 10대 게임체인저 기술개발
7~10년간 1조원(24 예타)
- 산업난제 해결 기술 확보
신규과제 예산 10% 이상(25~)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지원

- 기업주도 CVC 펀드 조성
'24년 2.4조원
- 저리(1.84%) 용자R&D 도입
'24년 900억원

기업-연구자 주도 과제 기획

- 품목지정 원칙 전환
(정부)품목 > (기획)기업-연구자
- 무기명 Peer Review 도입

주관기관 권한 강화

- 과제운영 전권 부여(Cascading)
* 공동연구기관 구성, 연구비 배분
- '24년 신규 10개 이상 추진

시장 중심 평가

- 시장·산업전문가 참여확대
- 민간투자연계형 3배 확대
(23) 385 > (24) 1,100억원

성과창출 지원 강화

- PD에 성과관리 권한·책임 부여
- 전문기관 기능·조직 개편

미래인재 양성 투자 확대

- 현장수요 기반 고급인재 양성
(23) 2,062억원 > (24) 2,294억원
- 첨단전략산업 특성화 대학원 8개 추가

글로벌 인재 성장기반 마련

- 국제공동연구시 연구인력 파견
* 연구비 외 체류비 지원
- 해외 현장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한·미) 1,923명, (한·네) 500명

신진연구자 성장사다리 구축

- R&D 전주기 참여 촉진
* 기획위원회, 선정평가 위원회 등
- 석·박사생 연구몰입 환경 조성
* 연구비 사용 증빙 간소화행정전담 인력 제도 확산

01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집중 투자

02 시장성과 극대화 하는 사업체계

03 수요자 중심 R&D 프로세스

04 사람을 키우는 R&D

대형 사업·과제로 재편

- 소규모사업
미션 중심
통폐합 280개 (23) → 230개 (24)
- 대형 통합형
과제 3배 확대 57개 (23) → 160개 (24)

선 예산 확정 후 과제기획

- 프로그램 사업 확대 58% > 71.8%
- 공고확대·상시 지원 연1회 > 연3회

수요기업 역할 강화

- 기업현금부담비율* 10~45%p 인하
* (大) 60~15% (中堅) 50~13% (中기) 40~10%
- 비공개 확대
- 연구비 지출 자율성 강화

글로벌 공동연구 확산

- 해외에 R&D 참여 개방,
6개 협력센터 구축
- 우수연구기관과 전략적 공동연구

... 산업·에너지 R&D 4대 혁신방안

- 12 -



첨단전략산업

계속

신규

<p>반도체 ['24] 2,142억원</p>	<p>▶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설계·제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 ['20~'26, 5,216억원] 	<p>화합물 전력반도체, 초격차 패키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합물 전력반도체기술개발사업 ['24~'28, 1,385억원] * 첨단전략산업 초격차기술개발사업 ['24~'26, 478억원] <hr/> <p>OLED 초격차 기술, 차세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전략산업 초격차기술개발사업 (디스플레이) ['24~'26, 352억원] * OLED한계를파형 상용화제품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24~'28, 294억원] <hr/> <p>모빌리티용 차세대 배터리, 저가격·長수명 나트륨 배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트륨 이차전지 핵심 소재 및 셀 제조 기술개발사업 ['24~'27, 205억원] * 친환경 모빌리티용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사업 ['24~'28, 1,172억원] <hr/> <p>바이오빅데이터 구축, 고생산성 세포주 및 배양 배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합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24~'28 932억원] * 수요맞춤형 바이오원부자재 제조경쟁력 강화사업 ['24~'28 386억원]
<p>디스플레이 ['24] 903억원</p>	<p>▶ 디스플레이 장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스플레이장비 국산화 핵심부분품 기술개발사업 ['23~'27, 463억원] 	
<p>이차전지 ['24] 525억원</p>	<p>▶ 하이니켈 양극소재 제조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용량 니켈계 양극소재 제조기술 ['21~'24, 76억원] 	
<p>바이오 ['24] 2,635억원</p>	<p>▶ 신약·의료기기 개발 전주기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신약개발사업 ['21~'30, 4,915억원] * 범부처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20~'25, 3,175억] 	

주력제조산업

계속

신규

<p>지능형 로봇 ['24] 1,230억원</p>	<p>▶ HW, SW 핵심기술 및 고난도 제조로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09-계속, '24년 1,174억원] 	<p>서비스 로봇 국가실증기반 구축, 소프트 로보틱스 국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로봇테스트 필드사업 ['24~'28, 1,997억원] * 소프트 로보틱스 분야 한미공동 ['24~'27, 70억원]
--	---	---

